

| | | | | | | | |
|----|---|----|-----|----|-----|-------|----|
| 성별 | 남 | 나이 | 57세 | 직종 | 운송업 | 직업관련성 | 있음 |
|----|---|----|-----|----|-----|-------|----|

1. 개요

박○○은 A항공에 입사하여 1999년부터 약 10년간 항공 정비 업무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 보행 장애가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2009년 4월 서울 Q병원에서 “말기발병 소뇌성 운동 실조”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환경

박○○은 1971년 군대 복무중 헬기 정비 일을 배웠으며, 1981년~1986년까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 후 S전자에서 재무관리 담당업무를 1년6개월 정도 하였고(1986~1988), 89년부터~95년 까지 전문학원에서 정비사 강의를 하였다. 95년 운송업 일을 시작했다.

A항공은 항공기 사용 사업으로 산불진화작업, 항공방제사업, 항공사진촬영, 화물운송, 한전고압선 순시 등이 있고, 항공방제사업은 1년 중 7, 8월에만 수행한다. 1회 출격 시에 10ha를 방제하고 하루에 10회~40회 출격한다. 박○○은 방제업무가 있을 때 헬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안내 역할을 해주었다. 착륙하면 농약을 헬기의 농약 탱크로 옮기는 일을 하였고, 농약(살균제 및 살충제)을 혼합하는 일, 방제할 지역을 정찰 비행할 때 동승하여 방제지역을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방제작업 참여기간 7년, 연간 평균 방제일 수 25일, 1일 평균 방제회수 30.7회, 1일 평균 방제시간 467분이었다. 농약노출 가능성은 약 1시간이었다. 농약 노출 시간은 1,458시간으로 높은 노출 수준을 보였다(국내 농업인 -평균 891시간 노출, 인도-96시간, 중국-71시간).

3. 의학적 소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건강검진 자료결과 2007년 감마지티피 135U/L, 혈당 118mg/dl 외에는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2008년 하반기부터 어지러움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고, 2009년 1월 MRI 촬영결과 소뇌에 이상이 있어 2009년 4월 서울Q병원에서 “말기발병 소뇌성 운동 실조”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보행장애와 구음장애등의 증상이 점차 심해져 2009년 11월 17일부터 출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 고찰

농약 노출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호장구 착용특성이다. 농약이 피부흡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약 고압살포기를 이용하여 시간당 500L의 농약을 살포할 때 호흡기에 의한 농약노출은 0.05 ml/hr,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노출량은 400 ml/hr 로 농약흡수는 호흡기가 아닌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결론

박○○의 “만기발병소뇌성운동실조”은

- 주 증상이 보행장애로 빈뇨와 기립성 저혈압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다계통위축증 소뇌형에 해당되고,
- 다계통위축증은 농약 및 농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 농약 노출 수준은 기타 산업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평균 노출수준보다 높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